

# EVA, 가격인상 불발로 채산성 악화

농업용 수요 급격히 감소해 거부감 심각 ... 톤당 103만-110만원 거래

농업용 필름, 신발내장재 및 포장재로 사용되는 EVA(Ethylene Vinyl Acetate) 시장은 최근의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다른 석유화학제품과 달리 내수가격이 크게 오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 수요증가를 둔화로 EVA 시장 성장률이 1-2%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1월 농업용 EVA(VA 함량 13-18%)의 내수 평균가격은 110만원대, LDPE 대체용 EVA(VA함량 3%)는 103만원대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석유화학제품과 합성수지제품은 2002년 11월부터 유가상승과 원료공급 불안정, 혼란한 국제정세 때문에 수출가격에 따라 내수가격도 급상승했으나 EVA의 내수가격 상승폭은 크지 못했다.

내수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한 이유는 생산기업들이 원재료가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상승을 시도했으나 여름철 홍수와 태풍피해로 농업용 최종수요가 급감했고 공급과잉으로 수요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용은 전체수요의 45% 정도를 차지하며 주요 수요처인 농업용에서 가격상승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신발발포용과 산업용에서도 커다란 가격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EVA 생산기업들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원료가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됐고 가공기업은 상대적으로 다른 석유화학제품보다 싸게 원료를 구입할 수 있다. 특히, 농업용 EVA는 8%정도 낮게 가격이 형성돼 가공기업의 채산성에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업용 LDPE(Low-Density Polyethylene) 대신 투명성과 보온성 기능이 뛰어난 EVA로 대체되는 추세가 강하고 3-4월 농번기 성수기를 앞두고 수요증가가 예상돼 2월에는 EVA 생산기업이 다른 석유화학제품과 발맞춰 내수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VA 수출가격은 2003년 1월 CFR China기준으로 톤당 780-800달러 수준에 달했고 2월 가격은 850달러대로 예상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3/26>